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3. 29.(수) 10:30 < 3.29.(수) 석간 > 배포 2023. 3. 28.(화)

완성차-해운업계, 자동차 수출 물류 적극 협력

- 자동차-해운협회,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자동차 수출 증대를 위하여 산업부-해수부 간 협업 지원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와 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3월 29일(수) 노보텔 앰배서더 용산 신라룸에서 「자동차 수출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」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. 이번 업무협약은 완성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 간 체결되었으며, 체결식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, 해수부 송상근 차관과 함께 현대차, 쌍용자동차, 르노코리아, 한국지엠(한국GM), 현대글로비스, 유코카캐리어스, 에이치엠엠(HMM) 등 국내 자동차 수출 물류에 관계된 완성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참석하였다.

최근 극동 발 자동차 수출물량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완성차업계는 상승한 물류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. '22년 말 기준 자동차운반선 용선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'19년도 대비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.

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 상황 속에서 자동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상호협력을 통해 수출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, 장기적으로 양 산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.

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최대한 적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,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출 화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, 동 업무협약에는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간 상생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. 아울러, 양 업계는 주기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경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< 양 업계 간 구체 협업사례 >

①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부족한 A사(완성차사)는 정부가 개최한 업계간담회 계기에 컨테이너선을 보유한 B사(선사)를 만나 컨테이너선을 통한 수출방안 협상중

② 양 업계는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협력중
* 자율주행차량 선·하역 지원시스템 개발('21~'27), 자율주행 운반차 기술개발·항만 실증('22~'25) 등

한편, 산업부와 해수부는 올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수출 물류 관련 업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 협업해오고 있다. 특히, 이번 자동차-해운업계 업무협약은 지난 3.28일에 개최된 철강-조선업계 상생협약식에 이어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·업종 간 상생 노력의 일환이다.

앞으로도 수출 증대를 위하여 전 부처가 협업하여 전력투구할 예정이며 특히,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주력 품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. 양 부처 차관은 오늘 협약식에서 "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박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상생 노력을 환영한다"라며 "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 업계가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곧이어 완성차업계의 수출·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.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"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아래에서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"라고 격려하면서 "올해도 완성차업계의 수출·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최보선 (044-203-43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성 (044-203-4321)
	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 장	허만욱 (044-200-5710)
		담당자	사무관	소현수 (044-200-572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